


DAY
01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6장 □ 7장 □ 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Date / /

말씀 레위기 8:6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유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벧전 2: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제사장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을 스스로 갖춰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곳을 “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깁니다(레 8:6).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옷 에봇을 입혔습니다.

제사장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 설 때는 옷에 가려져서 그 속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몸을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까지 깨끗이 씻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씻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관유를 가져와서 깨끗이 씻고 거룩한 옷을 입은 아론의 머리에 붓고 몸에 바릅니다. 기름 부음, 곧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의 본명은 루벤 아처 토레이 3세(R. A. Torrey III)입니다. 그분의 할아버지인 루벤 아처 토레이(R. A. Torrey)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룻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거든 차라리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이 불신자들의 말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실수를 일으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거든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하면 제 결정은 육신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제사장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므로 성령으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시다.

나눔1 성령충만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나눔2 본문에 나와 있는 토레이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2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9장 □ 10장 □ 11장 □ 12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Date / /

말씀 레위기 10:1-2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고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레 9:24). 아론이 드린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제단에는 이미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하기 이전에 이미 아론이 제단에서 제물들을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그 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일은 내 열심, 내 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열심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등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곧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불쏘시개입니다. 나의 열

심에 은혜라는 불쏘시개가 부어지면 작은 불꽃 하나 같았던 우리의 열심이 큰불이 되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은 상황과 환경을 녹여 뚫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단에 타고르고 있던 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불,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합쳐진 그 완전한 불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왔습니다.

“제단에 있는 불만 불이나? 나도 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불입니다. 그들은 교만의 불을 들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니 교만의 불을 들고 자신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하느냐, 어떤 불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불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눔 1 오늘 하루 받은 은혜로 행했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눔 2 내 삶 가운데 은혜의 불이 아닌 교만의 불로 행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3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13장 □ 1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Date / /

말씀 레위기 14:3-7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환자입니다

 나병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나병은 피부가 변하고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하게는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에 나병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 증상이 죄의 증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차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썩어가고 영혼의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점점 더 멸망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나병 환부가 깨끗하게 나은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나병 환부가 다 나은”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함을 받을 자”(레 14:4)라고 호칭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정결한 새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결한 새의 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나병환자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발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레 14:8). 이 말씀은 정결한 새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매일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빨고, 밀고, 씻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영 안에 머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DAY
04

오늘성경통독 레위기 15장 □ 16장 □ 17장 □ 18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Date / /

말씀 레위기 16:8-10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의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의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생명으로 죄의 값을 갚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염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신 완전한 대속입니다. 그 대속이 속죄제물로 드러지는 염소의 모습에 담겨져 있습니다(레 16:9).

그런데 또 다른 염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취하여 그중에 한 마리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에게 안수하여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광야로 내보냅니다(레 16:21). 그러면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까지 나가서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레 16:22).

이 두 마리의 염소에 대한 말씀은 진정한 회개라

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세상에 대하여도 회개해야 진짜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24)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물만 드린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해결하십시오.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세상과 형제를 향해 회개하여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